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혈당 조절(공복혈당, HbA1c)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 미주 한인교회 총 2천 798개, 2년 새 658개 감소

KCMUSA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미국 내 한인교회들의 수가 최근 2년 사이 658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보인다.

기독교 비영리재단인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KCMUSA)은 최근 발간한 '2022 미주 한인교회 주소록'에 '2021 미주 한인교회 센서스(전주소사)'를 수록했다. 지난해 7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2달 간, 재단이 보유한 한인교회 명단 및 각 교단의 최신 주소록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미주에 총 2,798개의 한인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의 3,456개와 비교하면 658개, 곧 약 20%가 감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약 2년 동안 338개 교회가 새로 등록했고, 1,022개 교회가 말소됐

다고 한다.

주요 주(state)별 한인교회 수를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830개(29%)로 가장 많고, 이어 뉴욕주 272개(10%), 텍사스주 157개(6%), 뉴저지주 139개(5%), 조지아주 135개(5%), 워싱턴주 125개(5%), 버지니아주 110개(4%), 일리노이주 99개(4%), 매릴랜드주 96개(3%), 펜실베이니아주 74(3%) 등의 순이다.

또 주요 도시(city)별 한인교회 수는, 로스앤젤레스(LA)가 184개로 가장 많고, 이어 플러싱 77개, 호놀룰루 39개, 애너하임 31개, 풀러턴 30개, 베이스айд 30개, 부에나파크 24개, 라스베가스 24개, 캐롤튼 23개, 덜러스 22개 순이다.

재단 이사장인 박희민 목사는

1. 2021 주요 주별 (10위내) 미주 한인 교회수

Rank	State	2019	2021	분포비율 (2021)
1	California	988	830	29%
2	New York	280	272	10%
3	Texas	189	157	6%
4	New Jersey	160	139	5%
5	Georgia	187	135	5%
6	Washington	163	125	5%
7	Virginia	154	110	4%
8	Illinois	172	99	4%
9	Maryland	121	96	3%
10	Pennsylvania	97	74	3%
	Etc.(40)	945	76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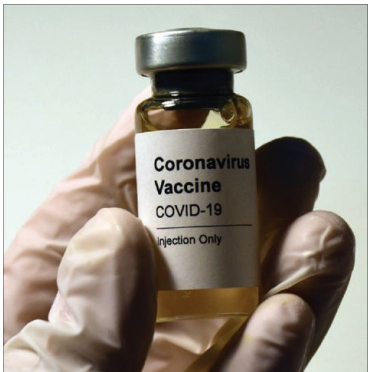
2021년 주요 주별 미주한인 교회수 ©KCMUSA

설 수도, 함께 모여 찬양할 수도 없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급기야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며 "재단은 한인교회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긴급히 전 미주지역 한인교회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교회들의 감소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저는 이 교회들이 '남은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미 2:12~13), 즉 '렘넌트'들의 신앙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루터기가 되어주실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아낌 없는 응원을 보낸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 美 법원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종교 자유 침해"



©Unsplash

미국 연방판사가 국방부의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조항과 관련, 해군 병사들이 바이든 행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소장에서 원고들은 백신의 의무 접종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북부지방법원 리드 오코너 판사는 3일 해군이 군인들의 종교적 반대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예비기 처분 명령을 내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했던 미국 텍사스주 북부지방법원 오코너 판사는 "해군은 종교적 수용 절차를 제공한다. 그러

나 최근에는 어떤 백신에 대해서도 종교적 면제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해군 병사들은 그들이 희생해서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자유가 얼마나 정당한지 보여주지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코로나19 대유행이라 해도 정부가 이러한 자유를 폐지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진 것은 아니다. 수정헌법 제1조에는 코로나19도 예외가 없다. 헌법은 군대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1월 네이비실 26명을

포함한 총 35명의 해군 병사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텍사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법률단체 퍼스트리버티연구소에서 법적인 변호를 맡고 있다.

미국 해병대에서 7년간 변호사로 근무한 바이크 베리 제1자유총괄고문은 이번 조치와 관련된 성명을 내고 "기쁘다. 백신 접종 의무가 군인들에게 신앙과 국가 봉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헌법과 미국의 가치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종교적 협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네이비실 대원들을 처벌하는 것은 순전히 보복적이고 징벌적인 것이다. 우리 국가 안보에 더 많은 피해를 입히기 전, 법원이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을 보호하는 행동을 취해줘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소송에서 원고들은 "생명과 낙태에 대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태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실험, 개발, 생산과 관련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혜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중고비자 및 이민업무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쁜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럼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뱅크럼시**

뱅크럼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행해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녀는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파지가 이루어지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사는...**

-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 책임**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는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물론 받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 때든지 마동환 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공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동환 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따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 실력** 마동환 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은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것이 마동환 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현) 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 재미발명가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전) Good Hands Organization 이사장



# 통박사 조병호의 통통성경 목회자 세미나 열린다

성경통독의 전문가 조병호 박사(성경통독원 원장)가 다가오는 2022년 1월 20일 뉴욕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통통성경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20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진행되는 일일 세미나로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희복 목사)의 후원 협력을 받아 열릴 계획이다.

성경통독원 조병호 박사는 1989년 성경통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35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경통독의 학문화, 대중화, 세계화' 운동을 이끌고 있다. 조 박사는 성경통독 전문가이자 역사학자로 성경 해석에 대한 50여 종의 책을 출간하여 이미 베스트셀러 저자로 유명하다.

특히 <성경과 5대 제국>을 비롯한 전쟁, 정치, 중간사 등의 '고대사 시리즈'는 베스트셀러로 기독교인은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성경 전체를 역사 순서에 따라 이야기로 풀어 쓴 <성경통독>은 통통성경 교재의 정석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이다.

조병호 박사는 책을 쓸 때 기본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숲을 살피며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프레임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설명한다. 그래서 책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요절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성

경 전체를 쉽고 재미있는 원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5년 이상 성경통독 연구에 힘쓴 조 박사는 최근 <52과 성경통독 교재 통통성경 길라잡이> 개정판을 내고 지도자 지침서와 함께 1천여 개의 피피티를 제공하여 교계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다.

성경통독원은 '모든 성경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가정에서 5세

부터' 이야기로 말할 수 있도록 '통통성경학교(Tong Bible Family School)'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하고 있다. 무엇보다 목회자(사모, 전임사역자, 선교사)를 위한 교육을 우선해야 모든 교회와 가정에서 성경통독이 실행될 수 있으므로 목회자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평신도를 대상으로 연 2-3회 대면하여 진행했던 3박4일 숲과나무 성경통

독 세미나는 현재 Zoom 세미나로 이어가고 있다.

조병호 박사는 국내에서 성경통독 운동을 펼치면서 동시에 10여 년 전부터 해외 성경통독 운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2006년 '통(通, Tong)'이라는 성경 해석 방법론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Dr. Leonard Sweet)와의 교류를 통해 통통성경을

미국 신학자, 목회자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간의 많은 성경통독 교재들을 영어로 번역·보급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에서 '통독바이블 앱(Tongdok Bible App)'을 출시하여 성경 3개 버전(NIV, KJV, ASV)마다 역사순 배열과 매일 다섯 가지 포인트로 내용 숲보기가 가능하도록 선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2,400개 이상의 교단들과 56만여 개의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처치네트워크(Global Church Network)> (Founder: Dr. James O. Davis)와의 협력을 통해 성경통독의 세계화를 실행해가고 있다. 그중의 하나로 조병호 박사는 <글로벌처치 디비니티 스쿨(Global Church Divinity School)>의 엘머 타운즈(Dr. Elmer Towns, 리버티대학 설립자) 박사를 비롯한 12명의 보드 위원 중 한 명이자 성경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1월 20일에 진행되는 <통성경 목회자 세미나>는 목회자들에게 조병호 박사의 통성경 프레임을 소개하고 통성경 방법론에 따른 성경 이해를 선보이는 장이 될 것이다. 문의와 신청은 장소를 제공하는 뉴욕 하크네시아교회 담임 전광성 목사나 플로리다 잭슨빌 시온침례교회 담임 허병욱 목사가 전담하고 있다.

문의: 전광성 목사 kwang.s.jeon@gmail.com

## ITS, 릴리 재단에서 100만 달러 그랜트 받아

ITS(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가 미국의 이민자 및 소수 민족 교회 목회자들의 사역 능력 강화를 위해 릴리 재단(Lilly Endowment Inc.)으로부터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ITS는 이번 100만 달러 기금으로 이민자 및 민족 지도자를 학위 프로그램으로 모집, 인증 프로그램 개발, MDiv에서 실용적인 신학의 확대, 이중 직업 인턴십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 지도력, 재정 및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신학교 시스템 강



ITS신학대학원 제임스 리 총장

화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릴리 재단은 "미래 계획을 위한 길"(Pathways for Tomorrow Initiative)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신학교를 지원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기독교 회중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단계로 고안됐다.

릴리 재단은 두 번째 단계의 프로젝트를 통해 84개 신학교를 선정하고 총 8천2백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했다.

릴리 재단의 크리스토퍼 코블 종교 담당 부의장은 "신학

교는 오랫동안 교회의 목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며 "거대한 급변의 시기에 신학교를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교회를 이끌 준비된 목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임스 리 총장은 "이것은 ITS의 진정한 이정표이다. 이 지원금이 신학교가 새로운 세대의 교회 지도자를 더 큰 능력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양육하는 시의적절하고 시급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

는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시스템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릴리 재단은 인디애나폴리스를 기반으로 1937년에 설립된 제약 회사인 엘리 릴리 앤 컴퍼니(Eli Lilly & Company)사의 주식을 증여해서 세운 사설 자선 재단이다. 그동안 지역 사회 개발, 교육 및 종교에 관해 지원해 왔으며, 미국 내 기독교회의 활력을 강화하고 목회자들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힘써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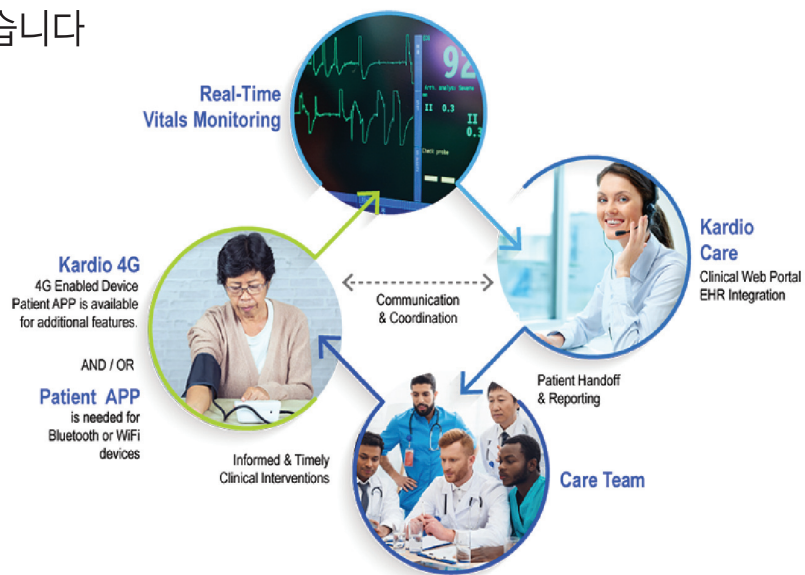
김동욱 기자

## 시니어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십니까?  
제 주치의와 대면하지 않고도 바이탈을 확인하며,  
여러분의 담당의료진은 해당 측정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카디오 원격진료(RPM - Remote Patient Monitoring)

- 시중에서 구입한 저가 혈압기나 혈당기는 이제 치우십시오! 전국 유명대학병원에서 사용중인 혈압기와 혈당기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바이탈을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담당 의료진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주치의는 보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의사방문이 필요하거나 약처방을 변경한다면, 응급실로 연결해야 하는지를 바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 바이탈이 정상밖으로 높거나 낮을때, 모니터링 담당자가 전화상담으로 상황을 점검합니다
- 여항중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어디서나 사용이 간편합니다
- 서비스의 사용료나 취소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 기기는 무료 대여이며, 사용을 원하지 않으실 때에는 병원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카디오 상담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디오 원격진료 서비스 Kardio Inc.**

Tel) 714-494-1380 www.Kardio.Health email) Info@kardio.health



# 월드미션대학교 “팬데믹 이후 예배를 다시 세운다!”

2022년 예배 포럼, 올 한해 네 차례에 걸쳐 진행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예배학 석사과정 주최로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예배공동체, 전세계 모든 예배자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일깨울 2022년 예배 포럼을 주최한다.

“예배, 리셋!”을 주제로 열리는 예배 포럼은 오는 14일(금) 오후 4시(미 서부시간) 첫 강의를 시작으로 3월 25일(금) 오후 4시, 6월 3일(금) 오후 4시, 10월 21일(금) 오후 4시까지 올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예배포럼의 강사진으로는 그렉 쉬어(Greg Scheer)교수, 김섭리 교수, 레스터 루스(Lester Ruth) 교수, 가진수 교수 등 월

드미션대학교 예배학 석사과정의 교수진이 나선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예배 포럼은 자타가 공인하는 현대 예배학 권위자들을 통해 현대 찬양의 중요성과 균형 있는 이론과 실재를 일깨우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영적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성경적 예배의 신학적 기초와 본질의 중요성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예배 포럼은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자에게는 줌 참가번호가 제공된다. 김동욱 기자 문의: 213-388-1000

2022 WMU '예배학 석사과정(MAWS)' 주최 예배 포럼

## 팬데믹 이후 다시 세우는 예배

# 예배, 리셋!

### Worship, Reset!

- 1차 01. 14 Fri. 16:00 “예배 예술을 통한 리셋” 그렉 쉬어 Greg Scheer 교수
- 2차 03. 25 Fri. 16:00 “은전한 회복의 예배 공동체로 리셋” 김섭리 교수
- 3차 06. 03 Fri. 16:00 “예배의 역사를 통한 리셋” 레스터 루스 Lester Ruth 교수
- 4차 10. 21 Fri. 16:00 “루틴 워십, 삶의 예배로 리셋” 가진수 교수

## 그레이스미션대학교 LA 강의실 글렌데일로 확장 이전



GMU 관계자들이 새로 이전한 글렌데일 강의실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 규남 박사, 이하 GMU)가 LA 한인타운에 위치하고 있었던 LA 확장 강의실을 글렌데일로 이전하였다. 이전한 주소는 317 W. Palmer Ave., Glendale, CA 91204 이다.

글렌데일 강의실은 단독 건물로, 보다 넓은 지역의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효과적인 신학교육

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GMU는 이번에 승인 받은 릴리 제단 2차 미디어 및 정보통신 교육을 실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YouTube방송 및 Black Magic Design ATEM 기기 및 카메라 등을 직접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강의실 환경을 구축했다.

GMU는 미디어 및 컴퓨터 강

의를 수강한 학생의 경우, ACSI에서 인정하는 컴퓨터 교사 자격증(Computer Teacher Certificate)과 GMU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및 아이티 자격증(Media & IT Certificate)을 수여해 공신력을 가지도록 할 예정이다.

GMU는 미디어 및 정보 통신 과목은 실제 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규 과목 시간과 별도로 방학 중, 주말, 주중에 인텐시브 방식과 실제 실습위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어 강의와 함께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강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부한 학생들이 직접 교회 및 기관에서 인턴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적 사역이 가능하도록 연계 할 예정이다. 인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미주 한인의 날 기념주일 및 43차 성령애국집회 개최



이우호 총회장. ©기독일보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목사)이 주최하는 제17회 '미주한인의 날' 기념주일 기념식 및 성령애국집회를 오는 16일(주일) 오후 4시, 플러튼에 위치한 참사랑교회(152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에서 개최한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은 미국 국회 상·하원에서 제정된 '미주한인의 날' 행사를 통

해 미주한인 역사의 신의 뿌리에 대해 홍보하고, 지역 사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한국을 홍보하는 날로 즐거운 축제의 날로 준비하고 있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은 지난 해 '대통령 이승만의 날'을 선포한 2개 도시 시장에게 이날 '자랑스런 미국인 상'을 수여하기로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 754-366-9923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을 없애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복음통일 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서울대 명예교수), 주성영(고려대 명예교수), 이종희(고려대 명예교수), 송경원(서울대 명예교수), 권준희(서울대 명예교수), 신정민(서울대 명예교수), 유관기(서울대 명예교수), 김관식(서울대 명예교수)

책의 특징: 이 책의 역사는 주류에서 주류로, \$20/원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늘을 없애지 않았다'는 복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휘장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원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재고유량: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동행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 이취임식 감사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있는 타운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한 몸으로 연합하여 모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교회의 거룩한 목적입니다. 금년은 오렌지카운티 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책임 있는 회원으로 연합하여 온전한 주의 은혜의 통로로 사명을 다 할 것입니다.”

직전회장 박상목 목사

신임회장 심상은 목사

직전이사장 이호우 목사

신임이사장 신원규 목사

후원이사장 김영수 정로

- 일시 :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오후 5시
- 장소 : 갈보리선교교회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 문의 : 총무 추석근 목사 (714-213-9627)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37

### “1월에 보내온 이슬람 선교 보고(2)”

12월에 떠난 팀 중에서 카스피 지역을 다녀온 팀이 있다. 9명의 지원자 중 한 명의 이탈자 없이 마지막까지 좋은 열매를 맺고 왔다. 장년들로 구성된 MIT팀이다. F.O. 단기선교의 경험자들은 목적에 따라 자원하여 더욱 특수한 단기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현재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각 나라 공항에서 백신 접종과 함께 출국하기 72시간 전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음성이 확인된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입국할 수 있다. 물론 테스트를 무료로 해 주는 곳이 있지만, 그곳의 결과가 늦게 나와 입국 전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우려해서 선교팀 중엔 300불에 달하는 테스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결과를 빨리 받아 볼 수 있도록 선교 일정에 맞추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았다. 비행기표값과 미국인들은 비자비가 400불이나 되는 비용을 모두 자비방으로 부담하면서까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이토록 선교에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며 연말과 새해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카스피 MIT 팀은 최근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체첸, 다게스탄 등의 나라들을 돌며 대학교 캠퍼스와 마을 주민 센터 등을 방문하여 영혼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친구 초청 잔치’에 초대하였다. 며칠 동안 지역을 돌며 영혼들을 만나며 동안 현지인들은 자기 집을 오픈하여 초대하는 가정들도 있다. 팀원들이 대부분 50대의 여성들이어서 현지의 가정주부들과 교제가 수월했다. 마음이 열리고 가까워지면 현지인이 자기의 입장을 말한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1년 전 이혼했다는 한 가정주부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팀원들과 같이 울기도 한다.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녀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줄 때 그 영혼은 치유를 받기도 하였다.

며칠 동안 영혼들과 만나면서 초청잔치에 초대하고 팀원들이 묵고 있던 호텔의 회의실 하나를 빌려서 준비해 간 풍선들과 데코레이션들로 장식

을 한다. 초청한 현지 영혼들을 기다릴 때의 선교팀의 간절한 마음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체첸에서는 60명, 다게스탄에서는 40명이 모였다. 그들을 위해 준비한 다과를 배풀며 한국 문화 탐방, 한복 입고 사진 찍기, 떡볶이 만들기, 태권도 배우기 등의 시간과 마지막에는 짧은 성극과 함께 복음을 선포한다. 단기팀이 아니면 어쩌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생 듣지 못할 수도 있다.

많은 시간, 많은 비용, 코로나의 위험, 이슬람의 견고함 등 어려운 요소들을 다 극복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선교팀은 1월에 또다시 미주에서 300여 명의 단기팀이 파송을 받고 나가게 된다. 이 선교 비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식의 교인으로서 머물러 살았을 텐데 선교 비전이 그런 보통의 나를 일으켜 열방을 보게 하고 그곳을 사랑하게 하고 용기 내어 그 땅의 영혼들을 만나러 가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로 인해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듣는 어떤 영혼들이 생긴다는 것, 그것은 벅찬 감격이고 감사이다.

예상치 못한 경험 간증) 체첸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사립학교로 기독교인과 이슬람이 반반씩 섞여 있는 학교의 교장이 크리스천이었다. 미국에서 온 한국 선교팀이라 하니 한나절(4시간) 시간을 줄 테니 당신들이 영어로 할 수 있는 모든 강의를 하라고 해서 한 분은 영어 찬송, 한 분은 바이블 스토리, 한 분은 간단한 영어 회화를 가르친 것지 못할 현지 학교 전도 체험기도 함께 전했다. (계속)

### 박광철 목사의 영성 개발

## 예수님 리더십의 특징 12 가지

세상에 훌륭한 영적 리더가 많지만 영적 리더의 최고의 본은 예수님이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삶의 표본이 되신다. 여기서는 주님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열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



**박 광 철 목사**  
슬트하우스선교회 대표

**1) 시험에 대한 저항 (마 4장)** : 사역 초기에 시작된 시험은 강했지만 더 강력한 말씀으로 이기셨다.

영적 리더는 일반인들보다 더 많고 더 강한 시험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 한다. 군대에서는 열 명의 사병보다 한 사람의 지휘관을 제거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인 것처럼 교회와 선교지의 지도자 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면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다. 여러 시험에 대비하여 더 많은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굳건히 서라.

**2)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긍휼** :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으셨다. 우리는 한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전도하다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어느 새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선한 일에 힘써서 칭찬을 들었지만 한편 어느 시점에서부터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해야 한다.

**3) 균형 잡힌 사역** : 삼중사역 즉 가르침, 전도와 섬김을 평생 지속하셨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 9:35). 즉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을 가르치시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과 각종 질병을 고치는 봉사의 사역을 하신 것이다. 좋은 지도자는 이렇게 균형 잡힌 사역을 감당한다.

**4) 겸손과 온유** : 영적 리더로서 겸손과 온유는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힘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 11:29). 좋은 지도자는 호령하고 지시하고 감질을 하지 않고 가르치고 협력하고 협동하되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행한다. 지도자와 독재자는 같지 않다.

**5) 아버지께 전적 순종** : 죽기까지 복종하신 본은 골고다에서도 보이셨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마 26:42).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6-8).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범사에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를 닮은 사람이다.

**6) 삶의 모범** : 제자들은 주님을 하루 24 시간 따르면서 그의 말씀과 행동과 삶을 보고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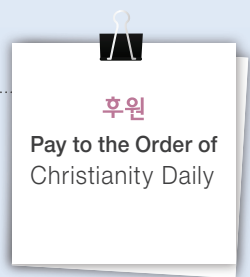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 11:29).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성도들이 자기를 닮기 바란다고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전 11:1).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그를 본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29). 영적 지도자는 다른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칭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행 2:47).

**7) 사역의 완수** :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처럼 그렇게 완수하시기 전에는 중단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주어진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2). 예수는 어떤 일을 한번 시작하신 후에 도중에 중단하시거나 표기하신 적이 없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다. 좋은 지도자는 일을 별릴 뿐 아니라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마치 용두사미처럼 많은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하지 못하면 무능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계속)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박사/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결정뉴스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보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www.davidlimlaw.com**

#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2022년 신년 대담] '백 년 믿음' 김형석 교수

# “한국 사회, ‘지도자’ 아닌 ‘지도자 길러낼 사람’ 이 없어”

변이를 거듭하며 물러가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동거해야 했던 2021년도 끝나고, '검은 호랑이의 해'라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드리는 절망 가운데 반드시 희망을 꽃피워야 하는 2022년, 크리스천투데이는 올해 103세를 맞는 '백 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교회와 사회, 그리스도인 개인의 나아갈 길을 청취했다. 김 교수는 얼마 전 <김형석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펴낼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김형석 교수는 책에서 “믿음이란 경건하고도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의 인격과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경호 기자

-1년 전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를 쓰셨습니다. 1년 사이 한국교회가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지요.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의 수준이 사회보다 높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에 비해 교육도 많이 받고, 문화적으로도 수준이 높았지요. 희망도 컸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우리도 저 사람들 따라가야겠다’ 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난 뒤 교회가 교회주의에 빠졌다고 할까, 스스로 만족하면서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 사이 사회가 교회보다 더 성장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제 손주들도 의무적으로 교회에 가지만, 교회에서 뭘 배웠다거나 깨달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완상 교수가 ‘영락교회 교인과 사회 일반인들의 의식구조’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락교회 교인 수준이 사회보다 높아서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영락교회보다 수준 높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장할 사람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독교가 되면 안 된다고 했지요.

저는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연세대학교를 떠났는데, 한 25년 전쯤 연세대 교목실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연세대 신입생 중 크리스천이 몇 %냐고 물었더니, 28%래요. ‘그럼 졸업생 중 크리스천은 몇 %냐고 했더니, 32% 정도래요. 4%라도 올라갔으니 다행이지요. 그런데 4% 중에 절반은 천주교라는 거예요.

교목실장이 ‘개신교 대학인데 왜 천주교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길래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볼 때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들이 있으면 성당에 가야겠다 싶을 텐데, 개신교회는 어느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따라가겠다 할 만한 분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한번도 교회를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셨습니다. 큰 교회, 성공한 교회 걱정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 걱정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과정일 뿐인데, 교회에서 끝나 버리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 수많은 갈등의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요.

“아무 갈등 없이 조용하게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살면 사람이 성장을 못 해요. 오히려 타락하기 쉽습니다.

남태평양에 가면 원주민들이 다 없어졌어요. 아무 시련도 갈등도 없이 열매 따먹고 편안히 살다 보니, 생각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 종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개인도 사회도, 갈등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등은 성공과 성장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어려운 문제와 시련이 다가오는 것은 좀 더 좋은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진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그 확신을 가진다면, 기독교가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각종 갈등에 대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올해는 대선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로 투표에 임해야 할까요.

“대통령을 뽑을 때 몇 가지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설교를 듣고 교회보다 더 높은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가진 마음 그릇이 작으면 그것만 갖게 되고, 그릇이 크면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그릇이 완전히 깊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은 교회 위해 사니까 그 정도 그릇만 가지고 있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고당 조만식 장로 같은 분은 항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만큼 그릇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사회가 되려면 중산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산층에서 지도층이 나오고, 그 지도층에서 대통령과 지도자가 배출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산층이 없으니 지도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도리어 지도자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만 나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임시정부에 있을 때, 당신은 낮은 위치에 있고 김구나 이승만 등은 다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분 일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 누구와 싸워서 화해시켰다. 누구한테 가서 오해를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좌우 대립도 독립할 때까지는 잠잠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러다 도산 선생이 꺼내신 지도자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없는 건 아니다. 지도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지도층 사람들이 지도자를 뽑으면 지도자인데, 그 사람을 받들어 주고 지도자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 키울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답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릇이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첫째로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기주의 자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에 방향을 두는 사람을 뽑아야지요. 그렇게 보면 아마 우리가 좀 알지 모르죠.”

이대웅 기자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팍, 싸이프러스, 라팔마, 엘바인 OC/LA전지역

**알짜배기 매물만 소개합니다**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4년을 믿으십시오.  
주택/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리스팅 전문

**뉴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케틀리**  
DRE #196805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Carle Lee Realtor  
Cell 714.345.4989

## 2022 마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중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여의도순복음, 코로나19 피해 교회 자원에 10억 원 전달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는 지난 5일 코로나19로 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소속 농어촌 미자립교회 2천 곳과 해외 선교지 교회 3백 곳에 '희망의 지원금' 10억 원을 전달했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나라 6만여 교회들 중 약 1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실에서, 우리 교회의 지원금이 마중물이 되어 한국교회 전체가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코로나로 헌금이 예년에 비해 30% 이상 줄어든 상황임에도, 지금까지 다섯 차례 추경 예산을 편성해 교회 내 영세소상공인, 기초



지원금 전달식 모습. 오른쪽부터 기하성 정동균·이태근 총회장, 이영훈 대표총회장, 엄진용 총무. ©여의도순복음교회

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에 10억 원을 지원했다.

또 돈의동과 남대문 쪽방촌에 4억 원을 지원했으며, 국제구호 NGO 굿피플과 함께 진행 중인 장애인, 다문화, 탈북민 가정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에도 10억 원을 기탁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기하성 이태근·정동균 총회장, 엄진용 총무 등이 참석했다.

이대웅 기자

# 분당중앙교회, 선교사 500가정 연금 지원 본격 추진



분당중앙교회는 1월 10일부터 40일간 피지원 선교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최 목사. ©송경호 기자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신년을 맞아, 지난해 목회비전으로 선포했던 "선교사 500명(가정) 연금 지원(연 6억 원, 총액 120억 원)"을 본격 시작한다. 분당중앙교회는 1월 5일 오후 2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한 교회 예배당 4층 헤세드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교사 연금 지원 기본원칙과 모집요강 등 중요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교회가 발표한 지원 대상은 만 45세(1977년생) 이하의 장기선교사로 헌신한 해외 파송 선교사 500명(분당중앙교회 소속 예정 합동에서 60%, 타교단에서 40%)이며, 20년 납입(선교사 1인당: 월 10만 원 ×240개월)과 10년 거치 이후 총 30년 경과 시점에서 연금 지급이 개시된다.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10일(월) 오전 9시부터 2022년 2월 19일(토) 오후 6시까지 40일간이며, 방법은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www.bdc.or.kr)에서 후원선교사 신청서와 이력서 등 접수서류들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교회 선교 위원회가 접수 서류를 확인하고, 선정 기준에 근거해 500가정을 선발한 뒤 당회에서 명단을 최종 승인하고, 2022년 3월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 및 신청서에 명기된 개별 이메일 통보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선교사는 후원 개시 후 은퇴하기까지 20년 이상 선교사역에 종사해야 하며, 중도에 연금 계좌 임의 해지, 변경, 수령개시 신청, 양도 등 후원 취지의 실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

며, 추가 납입도 해서는 안 된다. 선교사는 매년 12월 1일까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1년간 수행한 사역의 보고 및 다음 해를 포함한 앞으로의 사역계획을 기재한 보고서를 교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천 목사는 이번 연금 지원에 대해 "한국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교라는 사역에 있어서, 사역인 '일'이 아니라 그 사역(일)을 하는 선교사 '인물'을 보호하려는 의도"라며 "선교를 장기적인 구조 속에서 보면 일단 사역을 하는 선교사에게 노후 보장에 대한 일정 정도의 안정감을 줌으로, 노후에 대한 부담 없이 보다 장기적이고 자신 있는 선교사역을 진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 목사가 주장해 온 "역사 속의 교회, 끝까지 사람이다"라는 목회철학과 비전의 산물이기도 하다.

최 목사는 특히 한국교회 선교에 대해 "만약 선교를 마치고 현지에서 노후를 보내거나 귀국할 시 은퇴 선교사의 노후 보장이 안 된다면, 이러한 선교사들은 어쩔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빌려야 하는 비극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다수 선교사들의 초라함과 누추함은 한국교회 자체에 큰 짐이자 우려사항이 되고, 나아가서 한국사회에 조차 짐으로 여겨지며, 선교사와 그 사역의 영화요소는 가려지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여 누추한 자리로 방치시킨 교회의 책임이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경호 기자

# 이어령 선생 "가장 고통스러울 때, 신의 은총 느껴"



이어령 선생의 과거 인터뷰 모습.

암 투병 중인 이어령 선생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신의 은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령 선생은 최근 조선비즈 김지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밤중에, 새벽 3-4시에 가장 아프다. 그때 나는 신의 존재를, 은총을 느낀다"며 "고통의 한가운데서 신과 대면한다. 동이 트고 고통도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진다. 조금만 행복해도 인간은 신을 잊는다(웃음)"고 말했다.

최근 김지수 기자와의 인터뷰를 담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펴낸 이 선생은 1일 공개된 새로운 인터뷰에서 "여기 컵이 육체라면, 죽음은

이 컵이 깨지는 것이다. 우리 그릇이 깨지고 도자기가 깨지듯 내 몸이 깨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선생은 "그러면 담겨 있던 내 욕망도 감정도 쏟아진다. 출세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돈 벌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며 "안 사라지는 건, 원래 컵 안에 있었던 공간이다. 비어 있던 컵의 공간, 그게 은하수까지 닿는 스피릿(spirit), 영성"이라고 전했다.

또 "죽음 앞에 식은땀 안 흘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며 "다만 죽어도 영성의 세계를 갖고 간다, 그게 나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령 선생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인간도 반전의 역사를 반복했다. 36억 년 전 진핵세포가 여기까지 진화한 것은 선한 의지의 힘이였다"며 "모든 생명체가 그 방향을 알기에, 캄브리아기보다 더 많은 생명체가 지상을 덮고 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선생은 "마지막에 믿을 건, (오징어 게임 주인공) 성기훈처럼 자기 안에 있는 휴머니

티다. 자기 안의 세계성, 자기 안의 영성... 그것이 치킨 게임 같은,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승자로 만든다"며 "착한 자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으라. 여러분이 보는 악한 현실과는 다른 원리가 역사를 지배해 왔다는 것을. 지금 그것을 한국인이 만들어 퍼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생은 선물이고, 나는 컵의 빈 공간과 맞닿은 태초의 은하수로 돌아간다"며 "그러나 또 한 번 겸허히 고백하자면, 나는 살아있는 의식으로 죽음을 말했다. 진짜 죽음은... 슬픔조차 인식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참 슬픈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그 슬픔에 이르기 전에 전한다. 여러분과 함께 별을 보며 즐거웠다. 하늘의 별의 위치가 불가사의하게 질서정연하듯, 여러분의 마음의 별인 도덕률도 몸 안에서 그렇다는 걸 잊지 말라"며 "인간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라. 그 마음을 나누어 가지며, 여러분과 작별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대웅 기자

## CDTV 미주기독교일보

미주기독교일보(CDTV)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 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 소명 교수님의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로 온라인 목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GO'를 통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본 교회 속 관계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



신문GO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 통박사 조병호의 통통성경 목회자 세미나

## "미주 한인 목회자분들을 초청합니다~"

시간·공간·인간을 通으로! 개인·가정·나라를 通으로!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通으로!  
The Bible as One Story; to the cross, from the cross.

### 2022년 1월 20일(목) 10:30am~3:30pm

#### 뉴욕 하크네시아교회 (담임 전광성 목사)

5806 Springfield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 후원: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New York
- 대상: 목사, 사모, 전도사, 신학생, 평신도 리더
- 등록비: 40\$ (점심제공, 100명 정원)
- 문의: 전광성 목사 kwang.s.jeon@gmail.com  
허병욱 목사 tamuning@hotmail.com



김희복 목사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전광성 목사  
미주 통독바이블 네트워크 대표



허병욱 목사  
미주 통독바이블 네트워크 총무단장

#### 강사 통통박사 조병호



성경통독원 원장  
하이기연구소  
미국 드루대학교 객원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ThB 신학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V 교역학석사)  
연세대학교 연희신학대학원 (ThM 조직신학석사)  
영국 애딘버러대학교 대학원 (ThM 신교신학석사)  
영국 버밍엄대학교 대학원 (PhD 역사신학, 철학박사)

2004년 세계적인 독일 신학사전 RGG\*(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에  
이티를 '세계기독교학생선교운동(Studentische Missionsbewegung)'을 등재  
2006년 영국 왕립역사학회(Royal Historical Society)에 스피커로 초청되어 발제  
2006년 삶의 방법론이자 새로운 성경 읽기의 방식으로 '통(通)'을 최초로 말했다.  
2007년 미래 목회자 1만명 초청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준비위원장  
2008년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선언  
'성경을 통(通)한 재정향(ReOrientation)' 공동대표  
2014년 '통통성경 포물라(Formula for TongBible)'를 발표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독일 비텐베르크 2017 CONGRESS 스피커  
2021년 글로벌처치 디버니티스쿨 BOARD OF GOVERNOR

베스트셀러 《성경과 5대제국》- 2011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성경통독》- 2005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일반신앙부문 최우수상 수상  
《통하는 사도행전 30년》- 2020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신학부문 우수상 수상

저서 《통솔 주석》(전 2권, 《통하는 마지막 유월절, 첫번째 성찬식》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통통성경 길라잡이》(개정증보판), 《통통성경학교》, 《통통성경학교 워크북》  
《消失的帝國》(中國 團結出版社/성경과 5대제국 중국판)  
《성경과 고대전쟁》, 《성경과 고대정치》, 《신구약 중간기》, 《외우! 예레미야 70년》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등 50여종

편찬 《큰글자 일년일독 통독성경》, 《역사순 통통성경》

## Great Commission을 위한 North AMERICA TONGDOK BIBLE NETWORK for the GREAT COMMISSION 미주 통독바이블 네트워크 창립예배 & 통성경 세미나

일시 2022.1.27(목) ~ 28(금) / 6:00pm ~ 1:00pm (1박2일)

장소 올랜도 아름다운교회 (담임 엄준용 목사)



Founder 조병호  
(성경통독원 원장, 미국 드루대학교 객원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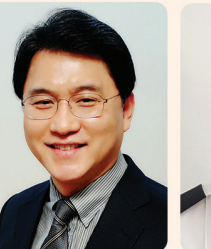
대표 전광성  
(하크네시아교회, NY)



총무단장 허병욱  
(잭슨빌시온침례교회, FL)



고문 신현택  
(뉴욕한인교회 중경회장)



고문 김영래  
(드루대학교 객원교수)



고문 김경환  
(KIM Mission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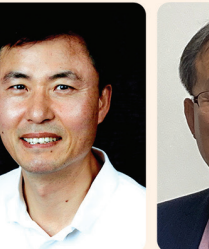
고문 김희복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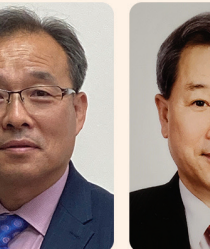
이사 류재영  
(동산김리교회, GA)



이사 한충기  
(매버그린장로교회, GA)



이사 김광섭  
(삼버그한인침례교회, IL)



이사 김곤  
(메수사랑교회, PA)



이사 정봉기  
(위터타운장로교회, NY)



총무 박정호  
(פל라한인침례교회, PA)



총무 조재철  
(살트열린교회, NC)



총무 엄준용  
(아름다운교회, FL)



총무 송명섭  
(달라스샘물교회, TX)



총무 김경환  
(버밍엄한인침례교회, AL)

#### <큰글자 일년일독 통독성경> 미국에서 [Tongdok Bible] APP으로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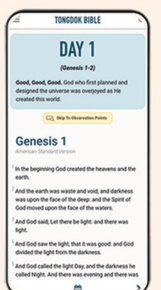


편찬: 조병호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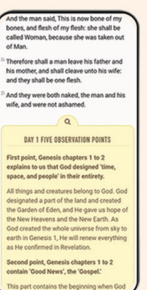


Tongdok Bible APP

- 역사순 편찬
-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 KJV (King James Version)
  -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



365일로구성



5가지포인트로숏보기

#### 추천해주신분들



Dr. James O Davis



Rev. Leon Fontaine



Dr. Leonard Sweet

무료다운로드

- 아이폰 App Store → 검색창 → Tongdok Bible → 설치
- 안드로이드 Play Store → 검색창 → Tongdok Bible → 설치

GLOBAL CHURCH DIVINITY SCHOOL  
PART OF THE GLOBAL CHURCH NETWORK

<https://gcds.tv>

### BOARD OF GOVERNORS

ENGAGING, EQUIPPING & EMPOWERING

- JAMES DAVIS
- DAVID MOHAM
- DAVID SOBAPENA
- KEN ULMER
- LEN SWEET
- VAN MOODY
- STANLEY HOFWIJKS
- ALEX NITALA
- SILVANO MURILLO
- BYOUNGHO ZOH
- EDDY LEO
- ELMER TORRES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 삶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내세움)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내세움)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섬기며, 이만2세를 기쁘게 하며, 선교영광을 추구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E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옆에)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이기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월-토)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관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평일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자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예배가 생기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전도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로 세울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arang.org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송재호**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2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 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매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주일 1부 오전 9:00 J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돋이요 내 밭에 빛이오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성령집회 오후 7:30 한아침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발리제들 OC제들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중등예배 오후 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EM 오후 1:30  
유년부 양아침예배 오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성령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오전 6: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2381 W. Orange Grove Ave., Fullerton, CA 92633  
12514 Haskell St., Northridge, CA 91325 (818)882-9887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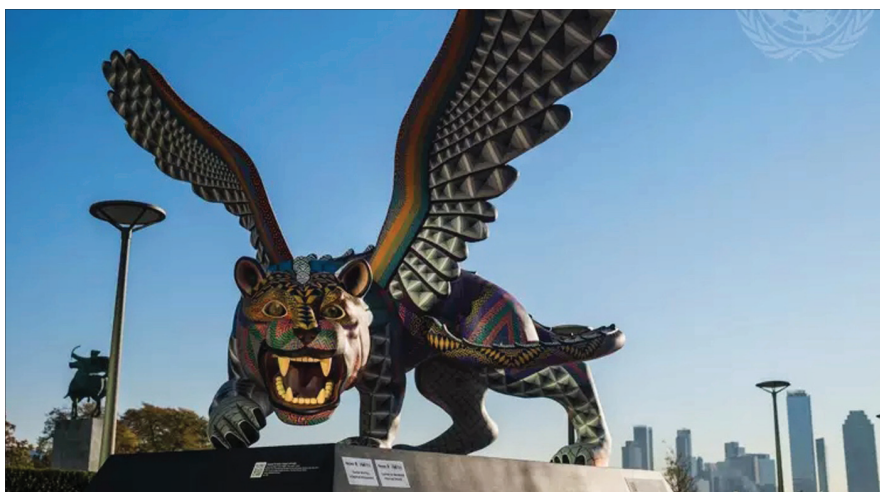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EM 오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짐승' 논란 빛은 UN 동상, 결국 철거



2021년 11월 9일 유엔 본부 방문 광장에 등장해 논란이 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수호자' 조각상 ©UN 제공/Manuel Elias

지난해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에 설치되었다가 성경에 등장한 '말세의 짐승'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조형물이 철거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수호자' 조각상은 유엔 주재 멕시코 대표부가 주최한 임시 전시회 작품이다.

유엔은 지난 11월 9일 이 조형물을 본부 건물 밖에 위치한 방문객 광장에 설치했으나, 대중의 거센 항의를 받아 12월 20일에 철거했다.

당시 유엔이 전시회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자, 기독교인들은 이 작품이 다니엘서 7장 2-4절이 말한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 또는 요한계시록 13장 2절이 예언한 '사탄의 권세를 가진 붉은 용'을 상징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성경의 '마지막 때'를 예언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예기치 않은 파멸'을 의미한다며 논란이 일었다.

미국 온라인 예술잡지 '하이퍼알러지(Hyperallergic)'에 따르면, 조각상은 UN 본부 전시에 앞서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멕시코 기념일인 '망자의 날(Día de los Muertos)' 행사를

위해 록펠러 센터에서 전시됐다.

아울러 행사장에는 11피트 길이에 달하는 거대한 용 조각상도 함께 전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작품 관계자는 재규어와 독수리가 합쳐진 형상인 '알레브리제(Alebríje)'가 성경 속 예언이 아닌, 멕시코 오악사카 민속 예술에 등장하는 '신화 속 영혼의 안내자'를 표현한다고 반박했다.

이 작품은 멕시코 예술가 부부인 자코보와 마리아 엔젤레스가 제작하여 오악사카 주정부가 유엔에 기증했다. 수석 디자이너이자 이들 부부의 아들인 리카르도는 이 조각상이 "미국(멕시코) 이민자들을 위한 수호자"라고 밝혔다.

그는 "이민을 오지 않은 공예가들과 미국의 가족들에게 공감과 연대를 상징하는 환상적인 존재를 만들기로 결심했다"라며 "이는 우리 가족의 매우 전통적인 상징주의와 혼합된 현재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라고 말했다.

알레한드로 히노호사 오악사카 주지사도 조각상이 2,500년 전 원주민 문명인 '사포텍(Zapotec) 문화'를 상징한다며 말세에 관한 논란을 일축했다.

김유진 기자

## 낙태,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작년에만 총 4,260만 건

전염병, 암, 흡연, 알코올, 교통사고, 자살 순

낙태가 2년 연속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했다. 작년 사망 원인 중 낙태는 약 4,260만 건으로, 2위인 전염병 사망자 약 1,300만 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건강, 전 세계 인구, 기타 지표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인 '월드미터'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입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시행되는 낙태 건수를 산정해 발표했다.

인터넷 아카이브 도구인 '웨이백 머신(The Wayback Machine)'이 캡처한 세계 측정기에 따르면, 이 외에 약 820만 명이 암으로, 약 500만 명이 흡연으로, 약 250만 명이 알코올로, 170만 명이 HIV/AIDS로, 130만 명이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110만 명이 자살했다.

또 약 85만 명이 수인성 질병으로, 50만은 계절성 독감으로, 40만 명은 말라리아로, 30만 명 이상의 산모는 출산 도중 목숨을 잃었다. 월드미터가 집계한 별도의 코로나19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52만 4,139명이었다.

2021년에는 약 5,870만 명이 사망했다. 이 수치는 낙태로 사망한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낙태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사망자는 1억 명에 달한다.

낙태가 전 세계적인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던 해는 2021년만이 아니다. 웨이백 머신이 2020년 12월 31일 입수한 세계측정기 자료에 따르면, 그 해 낙태 시술 건수는 4,260만 건을 넘어



낙태 반대 시위 장면. ©Unsplash

섰다. 또 다시 낙태 건수가 전염병 사망자 수의 3배에 달했다.

낙태는 전 세계적으로뿐 아니라 미국 내 사망 원인 1위이기도 하다. 낙태 옹호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는 2017년 미국에서 86만 2,320건의 낙태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CDC는 2019년 미국에서 총 62만 5,346건의 낙태가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이 통계에는 50개주 가운데 47개주와 뉴욕시의 자료만 포함돼 있으며,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낙태 관련 자료는 미시시피주 낙태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 내에서 낙태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된 가운데 나왔다.

이른 바 '뚝스 대 잰슨여성건강' 사건에서 재판관들은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가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낙태 금지법을 유지하려는 미시시피주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미시시피뿐 아니라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를 포함해 2021년 다수의 주에서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강혜진 기자



# 미국 초대형교회, 코로나와 현금감소로 교회 매각... 전면 온라인 전환

코로나19 팬데믹과 현금감소로 폐쇄된 미국의 한 다문화교회가 초대형 교회를 매각하고 전면 온라인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콜로라도 아라파호 카운티에 소재한 덴버 포터하우스(Potter's House of Denver)는 1천2백20만 달러(145억), 13만7천제곱피트(3850평) 규모의 초대형 교회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트레 로버츠 담임목사가 밝혔다.

사라 제리크-로버츠 사모와 함께 교회를 이끌고 있는 로버츠 목사는 덴버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의 모든 교회는 교구민과 더 넓은 지역사회를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을 재고하게 됐다"라며 "모일 수 없는 상황과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우리 교회는 미 전역 다른 많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현금 감소를 경험했다"라고 말했다.

로버츠 목사는 "10년 넘게 사용했지만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오래된 건물을 유지하는 대신 부동산을 매각하고 예배를 완전히 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을 매각하고 성공적인 대안으로 입증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면서 연간 수천 가정에 음식을 제공하는 푸드뱅크를 포함해 실질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라고 했다.

덴버 포스트에 따르면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인 'DHI Communities'가 현재 교회가 소재한 32에이커 규모의 부지를 5에이커 규모의 공원과 주택과 아파트 500여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덴버 포터하우스의 폐쇄는 미전역의 많은 교회가 출석률 감소로 인해 건물을 포기하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때로는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대안이 없는 경우도



©pixabay

있다고 CP는 전했다. 지난 성탄절 이브 펜실베이니아 주 벨폰테의 221년 된 벨폰트제일장로교회는 코로나19로 대면예배를 출석하는 인원이 12명으로 감소하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폐쇄했다. 전염병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수백여 명이 예배를 출석하기 위해 건물에 모여 들었던 전성기도 있었으나 약 40여 명의 성도들만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지난해 9월 1일부터 29일까지 개신교 목회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모든 개신교 교회가운데 98%가 현장예배를 위해 개방되어 있으며 이는 전염병 이전 수준과 거의 일치하지만, 교인들이 현장예배로 복귀하는 속도는 느려졌다고 CP는 전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월 수치와 비교했을 때 8월 현재 교회 중 13%는 코로나19 이전 출석률의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 가운데 약 35%는 해당 기간 동안 출석률이 50%에서 70% 사이라고 보고한 반면, 30%는 출석률이 70%에서 90% 사이라고 보고했다.

이미경 기자

# 일론 머스크 "예수님 말씀의 원칙 동의"



일론 머스크 ©유튜브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최근 유명 기독교 매체 '바빌론 비'와의 인터뷰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바빌론 비는 일상생활 뿐 아니라 기독교, 정치 이슈도 다루는, 인기 기독교 풍자 사이트다.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한 억만장자인 그는 바빌론 비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세스 딜런 CEO, 카일 맨 편집장, 에단 니콜 디렉터와 함께 심층 인터뷰했다.

니콜은 팟캐스트의 막바지에 "여기서 시간을 끌기 위한 마지막 질문을 하겠다. 바빌론 비는 기독교 단체이고 우리는 사역자들"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주인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머스크는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대로 나를 대접하라"는 말씀 등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존중하고 이에 동의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반대로 '오른뺨을 맞거든 다른 쪽뺨을 돌려대라'와 같은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눈에는 눈'으로 대응한다면 모두가 장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난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이신론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1921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뉴욕 인스티튜트 유대인 회당에서 "난 인간

의 운명과 행동을 염려하는 신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의 질서정연한 조화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한 바 있다.

머스크가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하신다면, 내 말은, 그의 길을 막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안 되나?"라고 말하자, 진행자들은 그의 반응을 반가워했다. 니콜은 "그가 방금 승낙한 것 같다"며 "우리가 그를 잡았다"고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머스크는 어려웠을 때 세례를 받고 영성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20년 드래곤캡슐이 멕시코만에 불사착한 뒤, 스페이스X 프로젝트에 관해 발언하던 중 "신앙심이 깊지 않지만, 이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때로는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로 묘사돼 왔다. 지난 2013년 배우 레일 윌슨과의 인터뷰에서 신앙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떤 것도 진정 예배하지 않고, 기술을 인용한 인류의 발전에 전념하고 있다"며 "말라리아로 죽을 뻔했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CP는 "머스크의 신앙이 진보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310) 618- 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없이 드러짐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 감사한인교회

예수님과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521-0991 / F.(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가족예배 매일 4부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전 11:00

### 남가주 벨헬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88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아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말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 메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949) 854-4010 / F.(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아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NMC대학원부 오후 2:30

###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사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714) 446-6200 / F.(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714) 893-1652 / krco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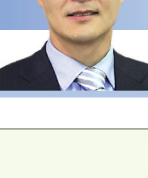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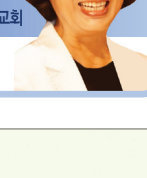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설교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323) 897-5751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 다양한 기독교정보

# 기독교일보 유튜브

유튜브 '미주 기독교일보 CDTV' 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 신문 GO






# 소말리아 알샤바브 반군, 케냐서 기독교인 6명 살해

소말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케냐의 라무 지역 해안 마을에서 테러가 발생해 최소 6명의 기독교인이 무참히 살해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소말리아의 극단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인 '알샤바브(al-Shabaab)'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케냐 기독교인 5명을 참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오전, 라무 서부 지역의 윈두 마을에서 사건을 목격한 스테판 실라 목사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인터네셔널 크리스천 컨선(ICC)'에 "사람들의 시체가 죽은 채로 누워 있었고, 집들이 불타는 참혹한 장면이었다"면서 "이것은 분명 끔찍한 테러 공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 7채가 불에 탔고, 집 안에서는 4명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다"면서 "불타고 있는 집 바로 밖에는 총에 맞아 죽은 시체 한 구와, 그 옆에 참수된 시체 한 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실라 목사는 "주민들이 모여 소말리아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교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군이 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를 묻고 있다"라며 "더 많은 경찰이 도착해 시



케냐 정부군과 알샤바브 반군(우측 하단) ©SABB TV 뉴스 보도화면 캡처

신을 수습하고 응급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케냐 유력 매체 '더 스탠더드(The Standard)'는 살해된 6명 중 5명이 참수되기 전 손이 뒤로 묶인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지역 내 여러 가옥 및 재산들이 불에 탔다고 경찰 보고서를 인용하여 전했다.

삼손 마차리아 라무 군의원은 테러 공격이 모든 주민이 잠든 3

일 새벽 4시경에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며, 케냐 보안군이 인근 숲에서 알샤바브 반군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케냐의 북동부 지역은 알샤바브 테러 단체의 끊임없는 위협에 노출되어 왔다. 알샤바브는 소말리아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수년간 반정부 활동을 펼쳐 왔고, 케냐 정부가 소말리아에 지원군을 파견한 뒤

보복을 공언해왔다. 이후 이 단체는 케냐와 소말리아 국경 양쪽에서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2015년 4월, 알샤바브는 케냐 북동부에 위치한 가리사 대학교를 급습해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분리한 뒤, 기독교 학생과 경찰, 군인 등 148명을 처형했다.

케냐는 기독교 지원 단체 '오픈도어스'가 선정한 2021년 세계 기독교 감시 대상국 중 49위에 올라 있다.

오픈도어스에 따르면, 케냐는 기독교인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케냐 북동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무슬림 출신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픈도어스는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받아 마을을 떠나야 했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알샤바브가 지역 주민들에게 잠입해 지역 내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패한 (케냐) 공무원들은 종종 박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독교인들에 대한 추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지적했다.

라무 서아프리카 내륙 교회를 감독하는 한 교회 지도자는 ICC에 케냐에서 기독교 신자들은 여전히 위험 가운데에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적들은 여전히 우리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배회하고 있다. 기독교인 6명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떠나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아파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이 위대한 케냐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코로나19 예매 폐쇄 반대' 시위 참가한 캐나다 목사, 경찰에 구속

코로나19 예매 제한을 강력히 비판해 온 캐나다 목회자가 보건부 장관의 자택 밖에서 벌인 시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또다시 체포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체포된 아투르 폴로우스키(Artur Pawlowski) 목사는 2일 앨버타주 보건부 장관인 제이슨 코핑(Jason Copping)의 집 앞에서 예매 제한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동생과 함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두 형제를 불법 집회에 가담하여 '공중 보건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지난해 5월 8일 두 형제가 경찰에 검거될 당시와 동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변화가 한복판의 도로에서 무릎 꿇은 채 스스로 걷기를 거부했고,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예매 제한을 성토했으며, 경찰을 향해 '게슈타포 나치'라고 외치며 저항했다. 또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캐나다 정부의 관행을 중국 공산당에 비유, "차이나(China)다"라고 지칭했다. 이후 형제는 보건부 장관의 자택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합의하여 구금에서 풀려났다.

캐나다 민영 매체 '리벨뉴스(Rebel News)'는 폴로우스키 목사의 체포 영상을 공유하며 경찰이 "그를 교회나 집에서 체포하거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시킬 수도 있었다"라며 "대신에 그와 다른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이런 요란한 광경을 택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제이슨 케니 앨버타주 총리는 성명에서 폴로우스키의 체포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그는



캐나다의 아투르 폴로우스키 목사 ©폴로우스키 목사 제공

"불행히도 백신 반대 음모론자들이 정부 관계자를 이런 식으로 위협한 것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대다수의 앨버타 주민은 이런 식의 극단주의를 거부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폴로우스키는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는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시위에 가담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보건부 장관의 집 밖에서 열리는 시위에 나와 초대했고, 분노를 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기도하기

위해 초대되었다. 집회에 참석한 뒤 나는 여기서 어떤 저주 또는 욕이나 광기 어린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반박했다.

폴로우스키는 당시 상황에 대해 "평화적인 철야 집회 중에 헬리콥터가 비행 중이었고 경찰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매우 평화로웠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캐나다로 이주한 폴란드 출신인 폴로우스키 목사는 앨버타주 켈거리 소재 스트리트 교회와 아돌람 동굴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지난해 그는 코로나 봉쇄령을 위반하고 예매를 진행한 혐의와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체포됐다. 지난 10월, 벌금 2만 3천 달러를 내고 18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유진 기자

## 목회 현장에서 발견한

# 목회보감

이 책은 부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다"처럼 길자연 목사의 은혜목회 회고록으로 목회현장에서 발견한 목회보감이다.

내용은 세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파트는 "나의 인생, 나의 고백"으로 가계 소개와 목회자로 소명 받은 과정이며, 제2 파트는 "나의 목회 사역"으로 영성목회와 교회부흥, 리더십, 설교 등이며, 제3 파트는 "한국교회를 향한 원로의 제언"으로 연합운동과 신학교육 현장의 사역을 통한 권면들이다.

길자연 저 / 408면  
22,000원 / 신국판 양장

**덕연(통보) 길자연 목사**

현역 목회자 대상으로 한 (국민일보) 설문조사에서 가장 리더십이 좋은 목회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평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를 전하며 영성 목회의 길을 걸어왔다. 깊은 영성은 명의(名醫) 칭호를 받으신 부친과 동대문 일대 거지들에게 국밥을 끓여 대접할 정도로 섬기는 삶을 사셨던 모친에게서 물려받았다. 절풍노도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부친에 이어 한의대를 졸업해 개업 한의사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침통을 놓고 성경을 붙잡고 탁월한 영성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고 있다. 왕성교회 원로목사이고, 현재는 양평에서 백합전원교회를 섬기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산의 낙조처럼 살아오고 있다.

서울왕성교회, 과천왕성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숭한 직책을 걸어오면서 기독교복합신학교 이사장(1984),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1991), 총회신학대 재단이사(199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1998), 개신교연합부활주일 연합예배 대표회장(1999), 영성 목회연구회 총재(199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통일신학교대학 2대 학장(2000), 기독교복합신학교 총재(2002),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이사장(2002), 제10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03-2004), 칼빈대학교 총장(2007-2011), 제17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10-2011), 제5대 총신대학교 총장(2013.12) 등을 역임했다.

1941년 4월 19일생으로 1964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과를 졸업하였다. 2001년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량스런 대광인상 수상(2003), 지량스런 목회자상 수상(2003), 서울기독교대학교 명예철학박사(2004), 미국 루이지애나 벨트스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2005)를 받았다. 저서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가리고 가는 사람, 두고 가는 사람), (문제 곁에 있는 해답), (고난 속에 숨은 축복), (길자연), (하나님을 향한 사람 1,2),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퀀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쿀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iran.co.kr  
• 서울 중구 이화정길 6 ☎ 02-747-1004(내)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면

에베소서 5:8-21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3:11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중략)...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무쌍한 세상살이에도 모든 자연계의 법칙이 어릴 때의 모습과 태도는 어른이 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원리를 바탕으로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수십 년을 교회 다닌 분도 있고 몇 년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신앙 연조라는 것은 기대치와 맞물려 가기 때문에 믿음 생활한 세월만큼 성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서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누워서 대소변도 못가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속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었는지를 되짚어 보고 자신이 신앙 생활한 만큼 얼마나 성숙되어져 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두움, 즉 죄악에 얽매어 살았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빛은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19-21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중략)...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는데 그 빛을 싫어하고 어둠으로 파고드는 이유는 스스로의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빛은 온갖 더러운 것과 잘못된 것들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지난 죄는 어떤 것이든지 한꺼번에 용서받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아 졌으면 이제 허물과 죄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빛 가운데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빛의 자녀들처럼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는데,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롭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이고 어느 곳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해놓은 일이 하나님의 뜻에 들어맞았다면 그 사람은 진실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는 사람은 성령께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면 그 때부터 그 인생은 주 성령님의 인도

하심을 따라 그 분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은 밀쳐내고 나라는 자신이 앞장서 나가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은 가치 있는 열매가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해서 마귀에게 속아 이성을 빼앗기고 죄짓는 일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엘 랭코’라고 하는데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라는 것이며 그 죄를 지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영혼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권면할 때는 그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권면하는 사람이 상대방보다 더 잘 믿는 것처럼 느끼게 될 때 듣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 말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책망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빛으로 그 사람에게 비추어 그가 빛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엄청난 죄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었더니 그 인생이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잘못된 것과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빛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는 것은 확실히 예수님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15-16절에 ‘지혜 있는 자되여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전날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뜻을 몰라보고 죄악을 일삼으며 살았던 잃어

버렸던 세월을 다시 돈을 주고 되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들고 섬김을 다할 기회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지난날 그 많은 세월을 영혼구원에 힘쓰지 않았음을 후회하며 세월을 아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심령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 때문입니다.

19-21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중략)...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피차 하나님을 더 잘 섬겨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간혹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고서라도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 주장도 내 주장도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경외(敬畏)한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간에 복종함으로 성령의 지시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들이 항상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것이며 그 뜻에 모든 주장들을 버리고 피차가 성령의 뜻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장 지혜롭고 보배로운 믿음이 되고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가장 민첩하고 즐거운 신앙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설교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기독일보 제공

#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 강준민 칼럼

# 변화는 성장에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 생명체는 변화합니다. 로버트 하퍼 목사는 “당신이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이 당신의 죽음이 시작되는 순간이다.”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변화가 중요한 까닭은 변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淘汰)하게 됩니다. 게일 쉬이는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성장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변화 속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변화를 자각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포자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빅터 프랭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영화는 수천 개의 장면으로 이뤄져 있고 각각의 장면이 다 뜻이 있고 의

미가 있지만, 영화의 전체적 의미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는다.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의 변화는 뒤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저는 수많은 변화를 통해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경험을 통해 저는 변화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인지를 압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달같이 새로 변화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달같이 달같은 채로 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달갈과 같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계속 평범하고 상하지 않은 달갈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부화하거나 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변화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모든 변화의 근원입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언어가 변화됩니다. 언어가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됩니다. 행동이 변화되면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습관이 변화됩니다. 습관이 변화되면 성품이 변화됩니다. 성품이 변화되면 우리 미래가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접촉을 통해 생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접촉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는 것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접촉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과의 접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너

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자극합니다. 생각이 자극받을 때 생각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생각이 새롭게 태어날 때 새로운 깨달음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변화와 성장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변화는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변화를 생각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올바른 변화를 위해 변화를 추구할 때 잠시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성장통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변화는 역설적이며 극적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

라”(고전 15:31)고 말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골 3:9)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엡 4:24).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16)고 말씀하십니다. 뱀에게 배우는 지혜는 허물을 벗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뱀의 몸은 자라는데, 허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뱀은 허물을 벗지 못하면 몸이 짓눌려 죽습니다. 허물을 벗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허물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지키기 위해 변화해야 합니다(고전 13:13). 은혜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의 기술 중의 하나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인은 “한 발짝이 쌓이지 않으면 천 리 길을 갈 수 없고, 작은 흐름이 쌓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더욱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 연재 '삶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죽선교  
박성원 목사

###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다

아이를 잡아먹은 사건으로 도인민위원회 군사위원회에 끌려

가 간신히 풀려난 뒤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함정에서 나를 구하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한번 더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목숨, 주저할 게 또 무어냐 싶은 심정으로 반원들을 모아 나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말에 결사반대 하고 나설 줄로 알았던 반원들이 오히려 하나님 만세를 외치며 당장에 변제를 드리자고 했다. 한편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들의 반응에 놀라고,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내가 형장

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반원들이 제사를 드리면 재앙이 멈춘다는 말에만 환호한다 싶어 섭섭하기도 했다.

이제 황소를 제물로 바치자고 내 입으로 제안했으니 다시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기 위해 돌을 나르라고 모든 작업반원들에게 명령했다. 우리 마을은 백두산 화산재가 1m 이상 쌓인 곳이라 마을에서는 돌을 찾아볼 수 없어서 돌을 나르려면 300m가 넘는 산골짜기까지 들어가 돌을 주워 와야 했다. 그런데 피죽도 못 먹어 금세 쓰러질 것 같던 반원들이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모두 열심을 냈다. 레위 자손들에게 돌아가는 분깃을 설명을 들어 잘 아는 반원들은 소고기 한 점이라도 얻어먹게 생긴 기쁨에 들뜬 듯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모은 돌로 제단을 쌓은 우리는 성경에서 명령한 대로 끌어온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우리 작업반의 모든 죄악을 이 소에게 담당시키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니 이 제물을 달게 받아 주시고 이후 모든 재앙을 멈추어 주십시오.”

기도가 끝난 뒤 우리는 황소의 머리를 향해 힘껏 도끼질을 했

다. 나는 도끼에 맞아 쓰러지는 황소를 바라보며 ‘아, 나는 이제 잠시 후면 강준님의 소를 함부로 도살했다는 죄패를 목에 걸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구나’ 싶어 정신이 아득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흠이 없는 소를 바치긴 했지만 그것은 곧 내 목숨과 바꾸는 일이었다. 그러니 이 일은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었다.

‘날강도에 쫓겨 도망하면 살인자를 만난다더니, 김정일에 쫓겨서 농촌 구석에 처박히니 그보다 더 악한(무서운) 하나님을 만나 반혁명도당으로 한줌의 재가 되는구나.’ (계속)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le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웃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저희 "심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기독교일보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가족 삼성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힘이 주어질수록 주님 인도를 받는 삶

창세기 10장을 보면 당시 탁월한 용사요, 대단한 영웅이었던 니므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뜻 보기에는 좋게 보이는 듯하지만, 70인 역 성경에는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흠어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죄성은 스스로 힘을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힘 있는 영웅 니므롯과 당시 세상 사람들도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하늘에 닿는 성을 쌓아서 우리의 영향력을 나타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이 강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니므롯은 걸로로는 강력해보이고 화려해보였

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에서 그 후손들까지도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구역이든, 선교이든, 흠여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음보다 예고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움직이면 잠간은 높은 바벨탑을 쌓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흠어져 복음의 증인이 되면 복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는 '나' 중심적 자기 선택의 시대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강요하는, 그래서 믿음과 반대로 살아가기가 쉬운 시대입니다. 물건을 사거나 일을 하거나 사람을 사귀고 결혼을 해도 다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나 부모님의 선택으로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사는 시대보다 결코 건강하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가나 부모님의 선택보다 내가

선택한 것이 더 많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거나 좋다는 공식이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와 함께 말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사37:5)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을 뛰어넘는 중요한 일일수록 오히려 내 생각과 반대로 간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을 살며 힘이 주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내 뜻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 중 제일 위험한 것이 졸음 운전 아닙니까? 깨어있지 않은 운전입니다. 그건 액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대형 사고를 내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이 혼탁한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깨어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지금은 내가 다 몰라도 끝에 가면 이기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잠시 잠깐 잘 나가는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 최종 승리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

제가 3~4년 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입니다. 저희교회와 한국 목포에 있는 빛과 소금교회는 자매 결연을 맺은 교회입니다. 제가 빛과 소금교회 조현용 목사님(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께 안부인사를 드리며, 한국 방문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셨는데, 저희교회 오셔야지요. 주일에 시간이 안 되시면, 평일이라도 저희교회 특별새벽기도기간이니 오셔서 말씀 전해주고 가지요" 말씀해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요일 밤에 목포에 내려가, 목사님과 교제하고 금요일 새벽예배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당시가 가을이었는데요(가을 특별새벽기도로 기억합니다). 강단에 오르고 보니, 젊은 남자

집사님이 예배당 제일 뒤에서 아이를 안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인 듯, 보자기에 찐 아이를 안고 새벽예배에 나온 것이지요. 아이가 약간 칭얼대서 그랬는지,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드리는 내내, 서서 예배드리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설교를 마치고 조현용 목사님께서 기도인도를 하시는데, 아이 아빠가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모습에, 마음이 "찌릿!" 전기가 오듯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절로 그 아이 아빠와 아이를 위한 기도가 나오더군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목포 빛과 소금교회 희망이 있다! 아직,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순천에서 목회



안 성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하시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사진 한 장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특별새벽기도를 하는데, 젊은 집사님이 기도순서를 담

당하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기도순서가 되었는데, 아직 어린 아이가 이제 막 잠이 든 것입니다. 엄마는 찬양팀에서 봉사중이고, 막 잠이든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서 아이를 안고 강단으로 올라와 대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눈물 나게 감사하고 눈물 나게 감사하여" 사진을 찍어 페이스 북에 올리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 나게 부러웠습니다.

목회자가 그 정도 감동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지난 주간, 신년 특별새벽기도에 참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특별새벽기도 독려를 했지만, 대

부분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구 헌신찬양이 있을 때 헌신 찬양하는 교구인원들이나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새벽기도 첫째 날, 강단에 올라가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참 많은 성도님들로 예배당이 채워 있었습니다. 앉아계신 성도님들을 보는데, 마음이 '울컥'하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중에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들 같은 마음 이셨다고 하시더군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e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Amount	\$100,000		\$300,000		\$500,000	
Ag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Ag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보험사 Rate 올 보험료/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학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중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NEWSTAR Realty & Inv. 뉴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팍, 사이프러스, 라팔마, 엘바인 OC/LA 전지역**

**알짜배기 매물만 소개합니다!** **New Star Carol 뉴스타 캐롤리** 2020 뉴스타 <금탑> 에이전트!!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4년을 믿으십시오

**최고의 투자는 아파트/유닛입니다!!** 지역중고 가격줄고 렌트잘나오는 유닛을 소개합니다

**NEW!** **사이프러스 모빌홈 \$12만** 방3화2 건평 약 1100SF 최고학군 최고 위치 스페이스 렌트 약 \$1,900

**특점 부에나팍 \$95만 HOT!** 방3, 화2 건평 약 1500 SF 단층 편리한 교통 썬솔 도보거리 투자자 환영. 렌트 \$3,000 받을 수 있는 곳

**특점 라미라다 79만** 방3화2 단층 건평 약 1400 SF 부에나팍 한타 5분 최고지역에 평화로운 지역

**부에나팍 \$120만** 방4화3, 건평 약 2400 sf. 포텐셜 빌딩 2개 추가 퍼미. 썬솔 도로, 세자봉 세퍼먼트 완전 리모델링된 집

**케롤리의 커머셜을 위한 스페셜 이벤트!!!** 많은 문의 바랍니다

**2020년 다수 수상**

**샌 버나디노 상가 빌딩 2채 \$250만** 약 13,000SF 사거리 코너에 위치 신호등이 있어, 유동인구 많음 Lease 문의 전화주세요

**라팔마 메디컬센터내 스페이스 렌트** 548 SF - 4,851SF. 다양한 사이즈 보유 병원관련된 업종 환영, 즉시 입주 가능

**특점 코로나 3유닛 \$98만** IN ESCROW

**특점 샌버나디노 4유닛 \$90만** IN ESCROW

**특점 몽고리안 비베규 \$32만** 랜초몰내 매우 비싼지역 꼭 관심있는 분만 전화주세요^^

**특점 샌버나디노 4유닛 \$75만** 전부 단층으로 좋은 포텐셜 17개의 방, 3화1 & 3화 방, 화1, 렌탈인컴 \$4,200/월

**특점 엘에이 인컴유닛 \$200만** 방7개 화4개 건평 약 2800SF Airbnb 로 약 \$13,000 월수입 완전 리모델링과 새로 업데이트된 집

**특점 포모나 2유닛 70만** IN ESCROW

**특점 폰타나 3유닛 72만** IN ESCROW

**특점 롱비치 보보쇼 \$15만** 매우 좋은 지역에 위치 절호의 천스

**특점 듀플렉스 리얼토 가장 안전한 투자** 방3화2(2리치1 & 방2화2)리치1 완전 업그레이드된 유닛, 새 플러밍, 주방, 화장실, 지붕

**특점 인컴유닛 \$220만** 방13개 화 7개 건평 약 2900 SF Airbnb 로 \$18000 월수입 완전 리모델링과 업데이트된 집

**특점 산타애나 11유닛 380만** 4개의 방 2화1.5 두운홀스타일, 리모델링된 월인컴 \$14,000 프리임로케이션

**특점 애나하임 25유닛 \$600만** 17개 방 1화1 8개 방 2화1 월인컴 \$23,000

**특점 애나하임 8유닛 \$380만** 월인컴 \$16,500

**특점 부에나팍 깨끗한 단층 \$67만** 방2화2 건평 약 1,260SF 대지 8,751SF, 별도 뒷채 방1화1 약 6168SF 자체 게이트 풀장, 파티오, 뉴레인트 & 키트

**특점 라미라다 단층 \$75만** 방4화3 건평 약 1,963SF 대지 8,751SF, 별도 뒷채 방1화1 약 6168SF 자체 게이트 풀장, 파티오, 뉴레인트 & 키트

**특점 라미라다 2유닛 \$87만** 방4화2.5 건평 약 2,152SF 대지 5,000SF,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 하이 셀링 풀 & 스파, 매트, 욕조, 욕조

**특점 뉴스타 사이닝스타 에이전트!!** 케롤리 DRE 01966905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Carolee Lee Realtor® Cell 714.345.4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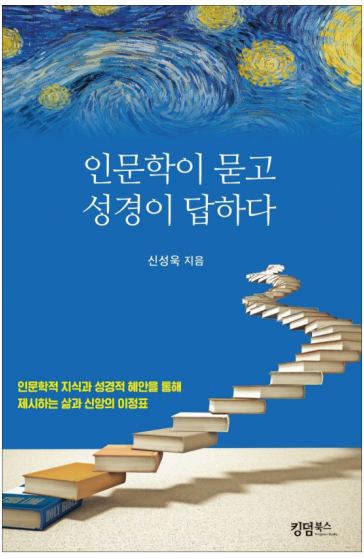
- 현 오렌지북부한인회 회장
- 뉴스타장학재단 이사겸 심사위원
- 뉴스타부동산 뉴에이전트 특강강사
- 사이프러스 25년 거주
- UCI 졸업 ● 확실한 1.5세
- Million Dollar Club
- 라디오서울을 1650 AM 부동산정보
- 한국일보 중앙일보 부동산칼럼 0\_562.824.4989

★ 주택 / 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 리스팅 전문,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에이전트 케롤리 ★



배우 최수종 씨도 추천한 책

「인문학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신성욱  
킹덤북스 | 319쪽

인문학적  
지식과  
성경적 해안을  
통해 제시하는  
삶과 신앙의  
이정표

신성욱 교수(아신대 설교학)가 책 「인문학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킹덤북스)를 최근 펴냈다. 이 책은 인문학적 지식과 성경적 해안을 통해 삶과 신앙의 이정표를 제시하려 한다.

이 책을 추천한 강준민 목사(LA 새생명비전교회 담임)는 “저자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표현하는 작가”라며 “익숙한 것은 낯설게 만들어 우리 지성을 깨우쳐주고, 또 낯설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익숙한 이야기로 설명해준다”고 했다.

또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는 “이 책은 크리스천이 아닌 독자에게는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전도서가 될 것이고, 신자에게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신앙적 가치관을 더욱 깊게 해 줄 것”이라고 추천했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는 “어떤 다양한 주제나 어려운 난제도 저자의 손에만 잡히면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막힘 없이 깔끔하고 명쾌하게 정리됨을 본다”며 “이 책이 그 책”이라고 했다.

송태근 목사(삼일교회 담임)는 “공감에서 그치지 않고 명확한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시의적절함을 넘

어 탁월하다고 본다”며 “혼돈의 시대에 따뜻한 공감과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는 “인문학과 신학 양자에 관심을 가진 분들, 아니 인생의 질문과 해답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은 지루하지 않게 밝은 생각의 자리로 인도할 네비게이션이 될 것”이라고 추천했다.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는 “저자의 글 하나 하나에 깊은 통찰과 번뜩이는 지적 예리함이 있다”며 “모든 내용을 성경의 가르침의 바탕에서 펼쳐내고 있는 본서는 지성의 절정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권하는 최고의 책”이라고 했다.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는 “삶과 동떨어진 말씀과 신앙은 이 시대를 대변할 수 없기에 할 수 있다면 다방면으로 박식한 저자가 삶의 현장에서 묵상하며 길러낸 이런 글들을 많이 읽어야 한다”며 “일독을 강추한다”고 했다.

배우인 최수종 장로(사랑의빛공동체)는 “본서는 우리 신앙에 관한 묵직한 교훈과 가르침을 인문학이란 명품 도구로 풀어낸 걸작”이라며 “영적인 삶에 관한 다

양한 주제들이 재미있고 맛깔스럽게 전개된다”고 추천했다.

한재욱 목사(강남비전교회 담임)는 “절벽 앞에서 울며 질문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신성욱 교수의 이 책에서 유쾌 상쾌 통쾌한 하나님의 정답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는다”며 “일독을 강권한다”고 했다.

저자 소개

계명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B.A)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Equiv.)을 졸업한 후, 미국에서 구약학(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수학)과 신약학(Calvin Theological Seminary)으로 석사 학위(Th.M)를, 남아공에서 설교학(University of Pretoria)으로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신구약을 아우르는 통전적인 성경해석학과 수사학적 설교를 전공했다. 성경적이면서 효과적인(Biblical & Effective) 설교와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 설교를 소개하고 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서 9년간 강의하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아신대학교 설교학 교수로 사역하면서 ‘강해 설교와 전달’, ‘성경 해석과 강해 설교’, ‘설교와 수사학’, ‘인문 고전과 설교’,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 설교’ 등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다 빈치 코드가 뭐길래?」(생명의말씀사, 2006), 「성경 먹는 기술」(규장, 2007),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생명의말씀사, 2007), 「이동원 목사의 설교 세계」(두란노, 2014), 「김창민 목사의 설교 세계」(두란노, 2020), 역서로는 존 맥아더의 「진리전쟁」(생명의말씀사, 2007), 「확신 있는 설교」(생명의말씀사, 2008), 「단순한 교회」(생명의말씀사, 2009)가 있다.

최승연 기자



[신간] 내 증인이 되라

예영커뮤니케이션이 조복섭 사모(미국 LA 실로암교회)의 신간 <내 증인이 되라>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전도에 관해 이야기하며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지 목표하고 기대하는 것은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 집필했다. 저자 조복섭 사모는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신 은사에 따라 주어진 상황과 만나는데 대상에 따라 전도 방법이 다양하다. 하나님은 이 모든 전도를 기뻐하신다.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지 오직 우리가 목표하고 기대하는 것은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누구나 구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 메시지를 항상 준비해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즉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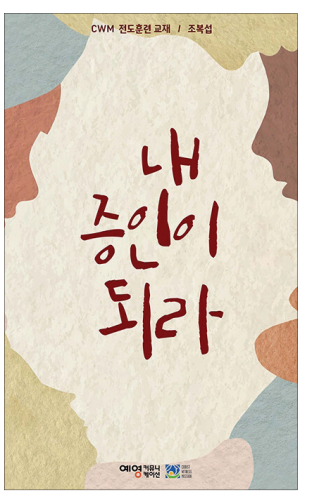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 다 음의 내용을 훈련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생활 현상이 복음 전도 현상이 되는 것이다. 전

도를 어쩌다 한번씩 하는게 아니라 몸에 배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도 모르게 그 영혼에 관심이 가고 전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둘째, 결심 전도를 위한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며 “우리가 전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나가서 들려줘야 할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잘 준비하며 전도 대상자의 신앙 상태에 맞춰 40분 이상 혹은 4분 동안도 전할 수 있는 복음 제시 내용을 준비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끝으로 조 사모는 “마지막으로 결심 전도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준비할 수 있다. 전도 대상자 찾기와 전도 대상자 마음

열기, 복음 화제로 대화를 이끌어 가면서 전도 기회를 만들거나 효과적인 결심 전도를 위해 전도 대상자의 신앙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 등을 준비한다면 주님께서 지혜롭고 능력있는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한편, 조복섭 사모는 1976년 도미하여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했다. 현재 미국 LA 소재 실로암교회 담임목사 아내로서 1989년에 Christ Witness Mission(CWM)을 창설하고 여러 가지 전도훈련 교재를 제



작하여 전도훈련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내 증인이 되라>, <이 벅한 구원의 감격!> 등이 있다.

최승연 기자

Advertisement for PRO-Z Gold capsules, featuring a bottle image, product benefits, and a 'NEW' banner. Text includes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and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Advertisement for PRO-Z Gold capsules, featuring a green banner with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and text about '당뇨병의 원인?' and '당뇨병 치료방법은?'.

Advertisement for PRO-Z Gold capsules, featuring a 'SALE' banner and text: '연말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매트릭스: 리저렉션> (1)

# 매트릭스 리저렉션: 주인공의 부활과 가상 세계의 위로

가상에 의해 부정되는 현실의 유일회성 4편, 유일회적 삶 소중함 주제역시 역행 현실 중심 서사, 가상현실 중심 전개돼 현실 무게감과 고달픔? 신앙 찾는 계기

◆가상과 현실: 철학과 신앙의 중요 주제, 현실과 가상의 연관성

최근 개봉한 <매트릭스> 시리즈 4편, <매트릭스: 리저렉션>은 시리즈 3편인 <매트릭스 3: 레볼루션>의 결말 이후 60년 뒤의 이야기를 다룬다.

3편의 결말에서 지하도시 시온의 인류를 구하고 죽음을 맞이한 줄 알았던 주인공 네오(키아누 리브스 분)와 트리니티(캐리엔 모스 분)는 또 다른 매트릭스를 창조한 인공지능에 의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두 사람은 이전의 매트릭스에서와 같이 조작된 기억을 가지고, 가짜로 꾸며진 삶의 정황에 매여 노예화되어 있다. 몸은 캡슐 안에, 정신은 가상세계 안에 갇혀 있는데, 시온의 후예들이 그들을 도와 현실 세계로 복귀하게 된다.

이후 두 사람은 동료들과 함께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여 매트릭스를 다시 장악한다.

이처럼 죽은 줄 알았던 전설적 인물들이 되살아나 가상 세계 속에서 벌어진 인간과 기계 사이의 새로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서사가 이번 <매트릭스: 리저렉션>의 간단한 줄거리이다.

이번 신작 역시 <매트릭스> 시리즈의 전매특허라 할 수 있는 실상과 가상의 연관성, 실상보다 더 생생한 가상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그런데 이 주제는 고대와 중세에는 하나님 나라와 물질 세계를 분별하려는 존재론의 주제였고, 근대에는 물 자체와 사고된 대상을 분별하려는 인식론의 주제였다.

현대에는 비본래적 일상성과 본래적 존재 가능성을 구별하는 실존철학의 주제이자, 전체주의적으로 구조화된 자아와 현실적 관계 속에서 개별화된 자아를 구별하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주

제로도 자리잡았다.

이처럼 <매트릭스> 시리즈는 존재와 인식을 포괄하는 철학적 주제를 서사의 중심에 두면서도 폭발적인 대중성까지 확보하였고, 그 덕분에 철학으로 영화 읽기를 시도할 때마다 빠짐없이 회자되는 작품이 되었다. 아마도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철학적 해석 시도가 이루어진 작품이 아닐까 생각된다.

<매트릭스> 이전에도 가상 세계에 관한 영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0년의 <토탈 리콜>이나 1995년의 <가상 현실>, 1998년의 <다크 시티>, 그리고 <매트릭스> 1편과 거의 같은 시기 개봉했던 1999년의 <13층>도 각기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가상 현실 서사를 풀어 나간다.

하지만 <매트릭스> 시리즈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다른 작품들을 압도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매트릭스> 시리즈는 다양한 철학과 종교 요소를 가장 직접적으로 차용하면서, 동시에 양자역학적 존재 이해, 기술에 의한 인간의 종속 문제, 초지능의 역습 문제까지 다채로운 자연과학적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엮어낸다.

이로 인해 <매트릭스>는 서구 철학사와 동서양 종교사에 대한 훌륭한 대중문화적 알레고리이자, 인간의 삶을 둘러싼 현실성과 가상성의 대립과 연합에 대한 수준 높은 메타포로 인정받는다.

사실 <매트릭스> 시리즈 전체가 이처럼 호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로 호평을 받는 것은 1편인 <매트릭스>와 3편인 <매트릭스 3: 레볼루션>이고, 2편인 <매트릭스 2: 리로디드>와 이번에 개봉한 4편 <매트릭스: 리저렉션>은 별로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특히 이번 4편은 추억팔이에 심하게 의존하는 바 있어, 서사의 참신성을 찾기 어려운 아쉬움이 존재한다.



<매트릭스> 시리즈 4편, <매트릭스: 리저렉션>.

◆가상과 현실도피: 가상세계가 주는 위로 때문에 상실하는 신앙의 계기

어쨌든 <매트릭스>는 실상과 가상의 연관성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매트릭스> 트릴로지, 즉 1편부터 3편까지의 내용에서는 가상이 더 실상같고 매혹적이지만, 사실 인류의 희망은 거칠고 고단한 현실의 삶에 있다는 주제의식이 담겨 있다.

게다가 가상 세계에서의 삶이 현실의 유일회적 삶의 제한에 묶여 있다는 설정을 충실하게 따른다. 가상 세계에서 한 번 죽음을 맞이하면, 정신의 사망으로 인해 현실의 몸도 사망하게 된다.

이런 주제의식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반갑고 유익하다. 인간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자연적 현실이 인간의 삶과 사고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 현실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수긍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성경은 구원을 위해 인간에게 허락된 현실의 시간과 공간이 각 사람에게 단 한 번 주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 전력을 다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리즈 4편인 <매트릭스: 리저렉션>은 이 유일회적 삶의 소중함에 대한 주제의식을 거부하고 역행한다.

3편 마지막에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했어야 하는 주인공 네오와 트리니티를 다시 살려놓고, 그들에게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가상세계를 마련해 준다.

언뜻 보면 삶의 두 번째 기회에 대한 메타포나 내세에 대한 알레고리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설정이나 서사 흐름상 주인공의 부활은 분명한 무리수다.

기존에 많은 수익을 거둬들인 시리즈를 되살려 관객들의 추억과 그리움을 담보로 최대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제작사의 심산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러다 보니 원래 현실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할 서사가 비현실, 즉 가상현실 중심으로 전개된다. 현실에서는 죽었어야 할 주인공들을 되살려야 했기에, 서사의 무게중심이 가상 쪽으로 옮겨진 것이다.

<매트릭스> 트릴로지에서도 그토록 강력한 임팩트를 선사한 소재, 빨간 약(현실로 진입)과 파란 약(가상 세계 잔류)도 4편에는 넘치도록 나와서 그저 식상하게 보일 뿐이다.

새롭게 소개되는 현실 세계인 지하도시 이오만 하더라도 가상 세계의 사건을 진행시키기 위한 보조적 소재로 가볍게 소비되 버린다. 결국 4편 서사 전반에서 현실을 중심으로 가상 세계가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 세계에 현실이 끌려다니고 있다.

이는 어쩌면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인지 모른다. 객관적인 공통 현실보다, 각자 체감하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극단적 개별화와 다원화 세태를 반영하는 듯하다.

이런 세태 속에서는 개인의 환영과 착각, 그리고 편견조차 각

사람의 실존을 근거짓는 참된 조건으로 인정된다. 오늘날의 이런 사상적 분위기 덕분에 <매트릭스> 4편 서사의 무게중심은 일방적으로 가상 세계로 쏠리고 있다.

가상 세계는 현실의 무게감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이들에게 매혹적이다. <매트릭스> 1편에 등장하는 배신자 사이퍼(조 판토리아노 분)처럼 현실 세계를 잊고 가상 세계 안에서 호의호식하기를 꿈꾸는 이들에게, 가상 세계는 새로운 삶의 기회이자 가볍게 소진할 수 있는 삶의 회차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이 모든 것은 현실의 고달픔과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를 회피하기 위한 작위적 수단에 불과하다. 현실의 고달픔과 과거에 대한 후회는 인간 스스로의 한계와 부조리함, 죄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나서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가상 세계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고 값싼 위로를 제공한다면, 인간은 거기에 안주해 자연적 현실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나서려는 노력을 포기할 것이다.

<매트릭스: 리저렉션>의 서사는 은연중에 이렇게 가상 세계에 의존하려는 욕망을 수궁함으로써, 이전까지 시리즈를 관통하던 현실 중심의 주제의식을 포기해 버린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 담임목사 청빙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에서 담임목사 은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교회(소개)
  - 이름: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 Antioch Church of Las Vegas)
  - 주소: 7635 Dean Martin Dr, Las Vegas, NV 89139 (702-749-9929)
  - 현 소속교단: 해외 한인장로회 (KPCA)
  - 교회 홈페이지: www.omychurch.org
- 지원자격
  - 미국 KPCA(해외한인장로교회)교단에 가입된 분이거나 가입할수 있는 분으로,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
  -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 되시는 분(부목사 포함)
  - 미국내 목회활동에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시민권, 영주권 소지자)
  -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가족소개포함, 최근본인 사진과 가족사진 첨부)
  -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 최근 6개월내 설교 2편 (동영상 또는 YouTube 링크)
  - 최종 사역교회 후보 또는 홈페이지 주소
  - 목사 2인 추천서 (추천인 연락처 기재요망 또는 추천인이 이메일로 직접제출)
  - 목회 비전과 계획
- 제출방법
  - 이메일: myungcho09@gmail.com
  - 제출기한: 2022년 2월 15일
  - 설교를 제외한 모든파일은 PDF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서류 심사후 청빙 후보자에게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경우, 청빙 결정후에도 취소될수 있습니다.
  - 최종 후보자는 원본제출을 요구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위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 담임목사 청빙

토랜스선한목자교회는 미국 Los Angeles 지역에 위치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서 2001년 6월에 설립한 이후 20년 동안 2세 교육과 복음전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2022년 정년으로 은퇴하시기에 2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의 학위 취득자
- 목사안수 받은 후 목회경력: 5년 이상(부목사 포함)/이민목회 경험자
- 이중언어 (한국어와 영어) 가능하신 분
-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으신 분

### 제출서류

- 이력서
- 최근 설교 동영상 혹은 오디오 2편
- 자기 소개서 (목회소명/ 목회경험/ 신앙고백/ 성장배경/ 가족 소개와 가족 사진/ 신앙간증/ 목회 비전 및 계획)
- 추천인 3인의 추천서
- 목사 안수증
- 졸업 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www.tgsc.org

제출 마감일: 2022년 3월 21일

제출처: rsong1010@gmail.com

### 기타

- 서류는 email 로만 접수합니다(Word, PDF).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 후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모든 문의는 email 로만 받습니다.
- 청빙 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토랜스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2531 W. 237th St. Torrance, CA90505



2022 WMU '예배학 석사과정(MAWS)' 주최 **예배 포럼**

팬데믹 이후 다시 세우는 예배

# 예배, 리셋! Worship, Reset!

- 1차 01.14 Fri. 16:00 "예배 예술을 통한 리셋" 그렉 쉬어 Greg Scheer 교수
- 2차 03.25 Fri. 16:00 "온전한 회복의 예배 공동체로 리셋" 김섭리 교수
- 3차 06. 03 Fri. 16:00 "예배의 역사를 통한 리셋" 레스터 루스 Lester Ruth 교수
- 4차 10.21 Fri. 16:00 "루틴 워십, 삶의 예배로 리셋" 가진수 교수



### | 내용 |

예배로 다시 시작하라!

### | 대상 |

목회자, 예배 사역자, 찬양 인도자, 신학생, 청년, 예배와 찬양에 관심 있는 사람

### | 참가비 |

무료 (선착순 100명)

### | 참가방법 |

신청자에게 Zoom 참가번호 공지

### | 주관 |

월드미션대학교 예배학과 (MA in Worship Studies)

### | 신청 및 문의 |

Tel: 213)388-1000

Email: wmuinfo@wmu.edu



**World Mission University**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